Melvin & Byeong

N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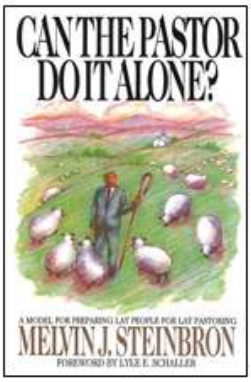
이것은 멜빈목사님의 첫번째 책 내용과, 그 책을 가지고 사역해나간 저의 글을 월간으로 준비합니다. 멜빈대학교에는 영어로 만들지만, 한국어판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만든 것입니다.

[2025년] 1월

평신도목회와 PACE사역

평신도목회/PACE 는 1978년 미국의 멜빈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인데 평신도의 돌봄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역자 서문



세계 교회사에 한국교회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은 평신도들의 활약이 켰다. 한국교회의 초기시대에 있었던 평양의 부흥운동이나 민 족의 해방운동이나 사회운동에 평신도들이 그 중심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에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성경공부 운동이 교회 안팍에서 크게 일어났고, 평신 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도 풍성히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1980년 대에 들어서 한국 교회는 평신도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평신도를 깨워 사역자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가 목회적인 돌봄사역(pastoral care)을 한다는 사역개념에 대해서는 빈약하였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성도를 돌봐주게 하는 사역에는 관심이 적었다.

주님께서는 부활후 승천하시기전 베드로에게"내 양을 돌보라"(요 21:15-17)는 사명을 주셨다. 대부분의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자상선교사명과 제훈련사명에 익숙해있고, "내양을 돌보라"는 사명에 대해서는 연약해있음은 부인할수없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명은 똑같은 구속사적인 맥락(부활후, 승천전)에 있는 것으로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본서는 이러한 사명을 미국의 오하이오 신시네티에 있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멜빈스타인브론 목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목양사역(pastoral care)은 안수받은 목사와 헌신된 평신도가 함께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수받은 목사의 주된 사역은평신도가 목양사역을 하도록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엠 4:11-12).

이 책은 평신도의 목양사역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스타인브론 의 두 번째 책인 "The Lay-Driven Church'"실천신학적인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평신도가 다른 평신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베풀 수웠는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래서 이 이 책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물론 미국의 교회상황과 우리 나라의 교회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무리가 되는 수도 있다(예를들면 한국교회는 이미 대부분 다락방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평신도목회자의 PAE 사역은 양적으로 비교해 볼때에 적은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보면 만만찮은 사역이다)

하지만 이 PACE 사역은 목회사역의 기본이요, 인프라이다. 모든 성도들의 상호관계를 목회적으로 상호 돌보는 사역의 관계로 시스템화 할때에 그 교회는 목회 사역의 아주 튼튼한 인프라(infra-ministry)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기초위에 무엇인들 세우지 못할까!

이 책의 저변에는 평신도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평신도도 목회사역에 참 제사장으로서 목회 사역자(목회직)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신도가 안수받은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하는 일을대신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 책에서는 안수받은 목사와 평신도목회자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멜빈목사는 이 책을 중심으로 평신도를 평신도목회자로 훈련해 내는 훈련교재를 만들었다. 이훈련교재는 교회의 목사들이 훈련을 받고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적으로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안수받은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되기를 바란다.●

김종태 목사. 서병채 목사

감수자의 글

전통적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목회적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께서 역시 "내 양을 돌보라" (요 21:15-17)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목회적 돌봄을 개 교회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목회자들이 전적으로 성도를 돌보든가 아니면 평신도목회자들이돌보든가 둘 중에 한가지가있을 뿐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는 여전도사들을 통해 돌봄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전임전도사의숫자가 몇 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임목사들이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들만이 수행하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소위 매년 대심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지만 그것도 일년에 한차례도 오기가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평신도목회사역(Lay Pastors Ministry)의 길뿐이다

평신도목회 사역에 대한 대표적 교과서가 스타인 부론 박사의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책이다. 평신도목회연구소 소장이신 서병채 목사님께서 초판을 번역해 주신것을 감사드린다. 한국교회의 필요를 위해 속히 번역출판하다보니 수정판이 필요하게 되어 좀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수정판을 내놓게 되어서 마음이 놓인다. 평신도목회연구원 학감이시고 평신도목회에 헌신하신 김종태 목사님께서 노력해주셔서 수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수정판은 거의 새롭게 번역된 것이다. 내용이 실제적으로 크리닉컬 테스트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한 내용이어서 한국교회에 소개할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한국교회도 속히 평신도목회를 배워서 이미 구역이나 다락방 사역들을 통해 평신도목회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회적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보강 되기를 바란다. 평신도목회 철학은 21세기 세계교회의 추세이다.

최근 한국에도 평목, 셀교회, NCD 등 오래된 개념이지만 새롭게 부각되는것은 바람작한 현상이다. 이 책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다시 깨워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전임목회자와함께 목회적 사역을 통해 교회를 잘 세우는데 큰 유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 8월

김상복 목사

전, 할렐루야교회 담임
전, 평신도목회연구원 원장
현, 횃불트리니티 신대원대학교 명예종장

평신도목회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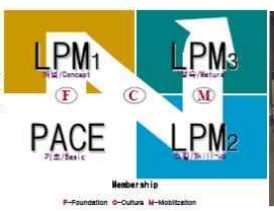
이것은 평신도들에 의한 회중적인 돌봄 시스템이다. 이 개념은 Melvin의 PACE 훈련 매뉴얼에 나와 있다. 도입부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것은 이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일단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컴퓨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켜진다. 그것이 시스템이다. 이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회 사역은 그래야 한다. 목사 혼자, 평신도 혼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몸, 한 교회, 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도자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평신도들에게 파급력이 크다. 만약 그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평신도들에게 직접 가고, 만약 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평신도들도 그것을 안다.

평신도들은 또한 그들의 교회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동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이 손, 눈 등 모든 신체 일부와 같다고 말한다. 우리가 컴퓨터를 볼 때, 우리 몸의 모든 부분, 즉 우리의 모든 구성원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폴 스티븐스 교수가 목사를 시스템 리더로 보도록 강조한 이유다. 그의 책 " The Equipping Pastor " 에서, 그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평신도목회는 이 목회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LPMI USA는 처음에는 이 목회가 평신도들이 한다는 뜻의 ' Lay Pastoral care ministry '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평신도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한다는 뜻의 ' Lay Pastors Ministry (LPM) ' 로 이름을 바꿨고, 그 핵심 사역은 PACE; 기도, 시간, 접촉, 모범이다. 그렇다. 그들은 “평신도 목회자”라는 사역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췄다. 왜?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고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사역 자체보다는 사역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다. 짐 콜린스도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알맞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올바른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왜 전면에 사람들이 먼저 필요한가? 대부분 교회는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채울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 경우 대부분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피동적이 돼버린다. 그들은 하긴 하지만 대부분 수동적이 되었다. 그들이 직접 선택했다면,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것이지만, 누군가의 선택 경우, 그들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훈련기간이 너무 길다

오늘의 평신도들은 어제와는 아주 다르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 전체, 심지어 교회 자체도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은 더 이상 옛날의 평신도가 아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 자체, 한 개인의 독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그들이 충분히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오늘날의 평신도들은 평생 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 일부 교회는 3년간 (예를 들어 제 자화) 훈련을 시키지만, 3년 과정을 마치면 그 교회가 모교였음에도 "훈련을 받은 교회"를 떠난다. 그들은 헌신적인 성도로서 약 20~3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오늘 떠난다. 왜 그런가? 그들은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성숙한 사람들이, 매우 잘 훈련되어 있고 어떤 사역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긴다. 그것이 한국의 오늘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현실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환상의 세계에 너무 오래 머물다가 많은 성도를 놓치고 만다. 많은 사람이 다른 교회로, 그래서 심지어는 곧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오늘날 너무 긴 훈련 과정, 커리큘럼이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랐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뿐인데, 정확히 말하면

목사님들은 그들을 비행기 격납고에 여전히 너무 오래 가둬놓는다. 성도들은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그 안에 가두어 둔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의 에너지는 날개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날 수 없다. 내 말은, 나갈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훈련과정을 마쳤지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올라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또 문을 열어 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날아갈 준비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의 치명적인 실수이다. 나는 그들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았다. 첫째, 그들의 훈련과정. 둘째, 그들은 동기부여를 충분히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회는 3년 훈련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보통 훈련과정은 교단 본부나 저명한 대형교회가 개발한 것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개 교회 목사님들은 큰 목사님들의 말을 믿거나 교단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개 교회들도 그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선택권 없으니 그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평신도들이 거의 녹초가 돼버릴 때까지 너무 오래 격납고에 넣어둔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평신도들은 많이 변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초기에는 성경과 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3년 공부/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역할 만큼 많이 성숙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또한 오늘날의 훈련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3년에서 2년, 그리고 1년, 그리고 6개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3개월. 오직 3개월의 훈련 과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 격납고에서 3년을 보내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않다. 아시다시피 PACE 훈련은 1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나 같은 경우에도 이틀이나 이틀 밤을 꼬박꼬박 훈련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날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목회자들이 할 일은 문을 열고, 그들이 공중을 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3년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것은 적절한 이유는 아니지만, 여전히 효과가 있다. 개 교회는 평신도들이 다른 교회에 가게 하는 대신, 목회자들은 그들이 현재 교회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3년이 맞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3년을 훈련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평신도들은 지난 10년, 혹은 20년 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다. 우리 목회자들은 실제적인 문제와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번역 및 원본복사 허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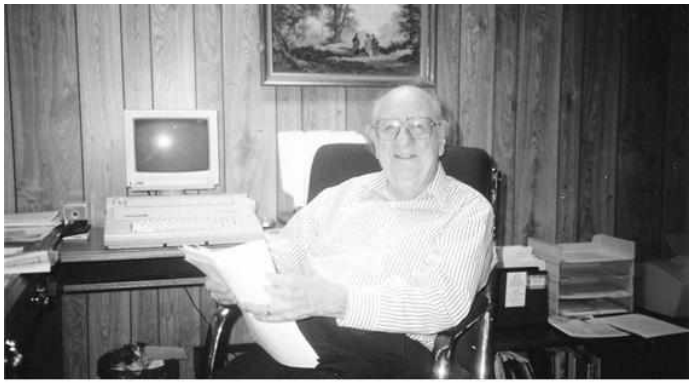
1996년 12월 23일

사랑하는 형제 서병채 목사님께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께서 나의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를 갖게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영국의 존 스토트(John Stott)목사님이 말씀하신 "두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서 목사님께서 한국의 신학생들이 "한국교회의 장래"라고 말한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 목사님을 통해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신다니 한없이 기쁩니다. 목사님께서 나의 책을 번역하고, 또 원본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또 한국 교회를 향한 서 목사님의 비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평신도목회협회 (LPMI USA)
멜빈 J. 스타인브런
미네아폴리스

공적인 파송예배

교회에서 소홀히 여기는 실수가 있다. 나는 한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훈련했는데, 사실은 내가 소속되고 있는 교회였다. 내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인데, 내가 멜빈 박사의 첫 번째 영어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평신도들을 훈련하라고 하셔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때 19명 정도가 지원하여 모였다. 그것은 나의 사역 여정의 첫 경험이었다. 나는 그들을 훈련했고, 교회에서 평신도목회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했다. 그리고 그들은, 교과서가 가르친 대로, 동료를 돌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많이 동기부여 되었고, 너무 높게 즉, 교회가 이전에 그렇게 움직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담임목사 자신에게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담임목사는 그들의 동기부여에 대해 조금 불편하고 두려워했다.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실수는 우리가 훈련을 마쳤을 때 파송 식을 해야 하는데,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 어떤 경우이든지 그들에게 사역자라는 증서를 공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간단한 행사이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공적으로 파송 식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그들에게 각각이 그의 사무실에 와서 개별적으로 파송 장을 주었다.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결국, PACE 사역은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한다. 아마도 그는 훈련을 받지 않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걱정한 것이고, 그들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걱정하신 것 같다. 그것은 목사님이 이 사역이란 것은 평신도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이것은 아마도 이전의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 평신도사역자들은 공개적으로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 공개적으로 사역할 수가 없어서 잘 안 되면서 곧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기회란 놓치면 안 된다

그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 사역을 너무 빨리 포기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기회를 주셨다고 믿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이상의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다. 기회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실수가 발생했다. 내가 훈련을 했는데, 의욕이 넘치고 사역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데, 담임목사님께서 아직 파송 식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뒤에 하겠다"고 말했다. 한 달 후에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지 물어봤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달이 지났지만, 나는 전화를 걸었고,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그들은 파송 식을 하지 못했다. 평신도사역자들은 준비되었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놓쳤다.◆

멜빈대학교/아프리카 케냐

대학 진입로

제2회 졸업식

www.melvinuniv.org
Melvin University | +254 722 582873 | melvinuniv.org
P.O. Box 183, Zip Code 40222-Oyugis, Homabay County, Kenya Africa